

보 도 자 료

(배포일 : 2014.4.11)

newpower, newstandard



한국전력기술

<http://www.kepcoco-enc.com>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보도자료 3매)

문의 : 홍보팀장 최규선(031-289-3024), 이흥우(031-289-4612)

한전기술, 본부장급 상임이사 3명 전원 교체

- 아울러, 비리근절·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쇄신 중점 추진 -

- 한국전력기술(사장 박구원, 이하 “한전기술”)은 4.11일 용인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본부장급 상임이사 3명 전원을 교체했다고 밝힘
 - 원자력본부장에는 조직래 前 신기술 Business Group장, 경영관리본부장은 신문철 前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장, 플랜트본부장은 김재원 前 플랜트사업개발처장을 선임·발령하였음
- 그간 한전기술은 박구원 사장 취임(13.10) 이후, 과거 원전비리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경영 전반의 쇄신방안을 수립한 바 있음
 - 이번 상임이사 교체는 기존 상임이사들이 원전비리와 관련이 없고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지만, 자체 경영쇄신의 일환으로 작년 원전 사태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차원에서 이루어짐
 - 이에 따라 경영쇄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
- 현재 한전기술은 상임이사 교체 외에 정부의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을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회사 자체적으로도 비리근절·원전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경영쇄신을 추진중임

【 한전기술 경영채신 주요내용 】

가. 비리 감시·견제 시스템 구축

- ① **(기술감사)** 감사실 內 전문엔지니어 인력 6명을 확충하여 “기술감사팀”을 신설(3.19), 그간의 일상감사 외에 기관 최초로 기술서류 위조, 설계상 특정업체 특혜 여부 등 전문기술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할 계획

- 아울러, 외부 전문가들로 기술감사위원회를 구성(4월)하여 기술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 **현행 업무 관행을 개선**해 나갈 계획

< 기술감사위원회 운영(안) >

- ◇ 구성 : 외부 산·학·연 전문가 및 한전기술 內 관련 기술그룹장 등
- ◇ 운영 : 한전기술 자문기구 형태로 월 1회 개최(감사실에서 행정지원)
(위원회의 제안 사항은 반드시 업무에 반영되도록 규정으로 명문화)

- ② **(제보 활성화)** 비리 제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외부 신고시스템인 “레드휘슬”*을 도입함(3.10)

* 외부기관이 비리신고를 접수받아 해당기관 감사부서에 전달(제보자 IP 추적 불가)

- 이와 함께 현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는 비리 신고 보상금 제도를 **외부 제보자에게도 적용**(최고 보상금 2억원)할 계획(4월)

- ③ **(정보공개)** 한전기술의 기술검토 내역*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술문의 창구를 공식화(게시판 운영, 4.1)하였음. 이를 통해 제작업체와 한전기술 직원간 비리 연루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임

* (공개 내역) 기기명, 공급자, 기기검증기관, 기술검토 방법, 검토 일정·결과 등으로서 매월 업데이트

나. 인사 혁신

- ① **(순환보직)** 제작업체와의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전소 현장근무자(동일발전소 기준 2년), 기기검증 담당인력(동일 기기·공급사 기준 5년)을 대상으로 순환보직제 실시(5월)

* 엔지니어 Career Path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순환보직으로 인한 기술력 저하 방지

- ② **(외부전문가 영입)** 기술적 폐쇄성이 큰 기기검증 분야에 시범적으로 외부전문가 영입 추진(4월중 3명)하고 향후 영입 분야·규모를 확대할 계획

다. 원전 안전성 강화

- ① **(기기검증 역량 제고)** 작년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기기검증 분야에 발생함에 따라, 기존 각 기술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기기검증 검토·승인 업무를 “원전기기안전센터”(1월 신설)로 통합하고,

- 센터內 3개 팀(내진/내환경/CGID)에서 위조, 인적 오류 등을 “더블 체크” 실시

- ② **(설계 완성도 제고)** “원전설계점검팀”(1월 신설)을 통해 개별 부서에서 수행한 설계결과물*을 독립적으로 재검토·보완

* 신규 직원 등 미숙련 인력이 승인한 사항, 특수 분야 설계 사항 등

- ③ **(제작업체 기술지원)** 한전기술은 원전 종합설계 기관으로서 국내 제작업체의 기술역량을 높여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계획으로,

- “품질관리교육센터”를 신설(6월)하여 영세한 기기공급사 대상으로 품질 관련 교육*, 공급자 문서 첨삭 지도를 지원할 계획

* 기기 설계·제작·검증 단계별 품질 요건 및 충족 방법, 공급자 문서 구비 요건 등

- 한전기술은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전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기 쇄신방안을 금년 상반기內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

- 아울러, 주요 국정과제인 공기업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쇄신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경영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임